

한국어 문법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특징 연구

김문기*·신인환**

I. 서론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항목은 그 의미 기능을 교수·학습하기 위해 제시된다. 따라서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는 것은 그 의미 기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이 아주 추상적이거나, 여러 의미 기능으로서의 용법을 지니는 등의 경우에는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법 ‘-게 되다’를 대상으로 하여, 이것의 의미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¹⁾ 이는 결국 ‘-게 되다’를 어떻게 파악하여 처리하는

* 제1저자,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강사

** 교신저자, 일본 마쓰야마대학교(松山大学) 경제학부 특임강사(한국어 교육)

1) 특히 본 논문에서는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을 교수·학습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자 한다. 즉, 한국어 교사들이 ‘-게 되다’를 교수·학습하기 위해서 ‘-게 되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 되다’의 교수·학습을 위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정하고 그것의 교

것이 효율적인가와 관련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 말뭉치 자료에서 ‘-게 되다’가 쓰인 용례들을 추출하여 ‘-게 되다’가 어떤 의미 기능을 나타내며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존의 한국어 문법 교육 관련 자료들에서는 ‘-게 되다’의 의미 기능으로 ‘피동’, ‘변화(상태, 상황)’, ‘공손’ 등을 제시하고 있다.²⁾

- (1) ㄱ. 나는 배가 아파서 저녁을 끓게 되었다.
 ㄴ. 이번 시험에서 철수가 1등을 하게 되었다.
 ㄷ.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ㄱ)은 ‘나는 배가 아파서 저녁을 끓었다.’라는 능동문이 문법적 절차를 거쳐 장형 피동문이 된 것이며, (1ㄴ)은 상태(state)나 상황(situation)³⁾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1ㄷ)은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볼 때 ‘공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⁴⁾

다음으로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는 ‘-게 되다’를 독립된 문법 항목으로 다룰 때 보통 ‘상태/상황/사건/동작 변화’, ‘동기(動機)/계기(契機)’, ‘변화 후 결과 상태’ 등의 의미 기능으로 제시된다.

- (2) ㄱ.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서울대 한국어 2B』, 247)
 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경희한국어 문법 3』, 25)
 ㄷ. 일 때문에 외국에 가게 되었어요. (『연세 한국어 2-2』, 280)

수학습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에 대해서는 II장의 1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상태(state, 狀態)’와 ‘상황(situation, 狀況)’을 구별하고자 한다. 물론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전자는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으로서 정태적인 의미로, 후자는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형편’으로서 동적인 과정의 의미로 파악하고자 한다.
 4) 이러한 ‘공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나이나 이름 등을 높여서 묻는 등 매우 한정된 쓰임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관용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논의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기로 한다.

(2ㄱ)은 문장 자체의 의미보다는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2ㄴ)은 '-게 되다'의 수식을 받는 '동기'에 그 의미 기능의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⁵⁾ (2ㄷ)은 변화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2ㄱ)에서 '-게 되다'는 상태 변화라기보다는 결과 상태와 피동의 의미를 보이는 듯하다.⁶⁾ 특히, 주어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피동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2ㄴ)에서는 주어가 처한 상황의 변화라는 의미와, 그러한 상황이 주어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동의 의미가 드러난다. (2ㄷ)에서는 결과 상태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 상태가 주어의 의도나 의지 등과 무관하게 주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피동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처럼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게 되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 2020. 11(3쇄)'의 현대 국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게 되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여기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 관련 자료, 관련 논문, 한국어 교재 등을 검토하여 '-게 되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5) 이 경우 '동기/계기'라는 의미가 '-게 되다' 자체의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예를 들어 이 예문을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로 표현한다면, '동기/계기'의 의미는 '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게 되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 II장에서 언급하겠지만,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피동'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게 되다'는 독립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피동'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문법 항목으로 '피동사'와 '어어지다'만을 제시할 뿐이었다.

1. 한국어 문법 교육 관련 자료

먼저 한국어 문법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에서 ‘-게 되다’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표 1〉 ‘-게 되다’와 ‘-아/어/여지다’의 의미 기능과 특징

구분	-게 되다	-아/어/여지다
국립국어원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거나 바뀌었음 동사 결합: 주어의 의지, 바람과 달리 타인의 행위나 어떤 외부적 조건으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됨 형용사 결합: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어떤 노력이나 인위적인 것에 의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거나 어떠한 상태로 됨 동사 결합: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거나 어떤 동작이 저절로 일어나 그러한 상태로 됨 형용사 결합: 점점 어떤 상태로 되어 감
강현화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됨 주로 동사 결합(‘바쁘다, 어렵다’ 등 일부 형용사 결합) ‘-었’, ‘-겠’ 등 결합 제약 평서문, 의문문 가능 공손한 표현: 1인칭 주어(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짐) ‘-게 되다’와 피동 접미사에 의한 피동 사이의 의미 차이 존재 	없음
백봉자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동사 동작동사, 상태동사와 결합 피동형 형성: 피동 형태, 결과 중심의 표현 다른 사람의 행위나 상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거나 상태에 있게 되는 피동 형태 변화의 결과(‘결국, 마침내, 드디어’ 등과 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동사 지다(동사)+-어/아/여 동작동사 결합: 피동 상태동사 결합: 변화(변화의 과정, ‘점점, 차츰’과 쓰임)

‘-게 되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 국립국어원(2009)과 강현화 외(2018)에서

7) 국립국어원(2009, 24-26, 546-547), 백봉자(2007, 229-230, 441), 강현화 외(2018, 481-482) 참조 이때 ‘-게 되다’가 피동 표현과 관련된다고 판단하여 ‘-아/어/여지다’를 함께 제시하였다.

는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2009)에서는 동사가 결합할 때에는 타인의 행위나 어떤 외부적 조건으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형용사가 결합할 때는 어떤 노력 등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하였다. 이에 비해, 강현화 외(2018)에서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에 이른다는 의미로 제시했으며, 화용적으로 ‘공손’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백봉자(2007)에서는 ‘피동’과 함께 ‘변화의 결과’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앞의 두 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2. 관련 논문 검토

‘-게 되다’에 대해 논의한 몇몇 연구 논문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게 되다’에 대한 논의 양상

구분	의미 기능	문법 범주	중심 요소	비고
김선영 (2015)	• 상태 변화(피동 의미 느껴짐)	• -게(부사절)+되다(본동사)	• 되다: 본동사	• 속성 변화 • 상황 변화 • 조건, 원인 선행
김정남 (2009)	• 변화 • ‘형용사+게 되다와 ‘어지다’의 교체: 변화	∅	• 형용사 결합: 변화 • 자·타동사 결합: 자동성 • 일부 타동사 결합: 피동	• ‘어지다’ 교체 불가능: 피동 • 선행 어휘 유형: 원인, 조건, 자동성
김서형 (2014)	• 변화, 피동, 공손	∅	∅	• 외국인 학습자 중심 • 교재 분석, 말뭉치 분석
김윤신 (2018)	• 국면의 변화 (상태 변화) -이원 대립적	• 보조 용언 구성	• 보조 용언 ‘되다’가 논항 결정	• 합성성의 원리 • 통사 구조 중심 • 태로서의 ‘피동’ 의

	-극 대립적			미와 그 파생 의미 (행위 입음, 무의지성) 구별
유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 변화 • 형용사+게 되다: 내포 형용사구문이 나타내는 상황 변화 • 동사+게 되다: 이루어짐(명제/사건, 명제, 사건[+완망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지다’와 ‘-게 되다’ 비교 • 말뭉치 분석 • ‘-게 되다’의 주변적 의미: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이루어짐(양태 의미: 피동성, 공손성)

<표 2>에서처럼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변화’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게 되다’의 용법에서 ‘피동’과 ‘공손’의 의미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게’의 선행 요소에 따라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때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가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게 되다’의 문법 범주와 관련하여 ‘되다’를 보조 용언 또는 본용언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게’를 각각 보조적 연결 어미나 부사형 전성 어미로 파악하기도 했다. 결국, ‘-게 되다’의 문법 범주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그 의미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 ‘-게 되다’의 ‘되다’는 ‘본용언(본동사)’으로 보는 것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어 교재 분석

여기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게 되다’와 관련된 문법 항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때 ‘-아/어/여지다’, ‘-게’, ‘피동’, ‘-게 되다’와 관련된 덩어리 표현 등이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경우를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 교재의 '-게 되다'와 관련 문법 항목

구분	교재	문법 항목	의미 기능	비고	
경희대	경희한국어 문법 2	52	상태동사+-아/어지다	상태 변화	
		03	상태동사+-게	부사: 수식	
	경희한국어 문법 3	08	동작동사+-게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일/동작의 변화 동기, 계기 	
		62	피동	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동 접미사 -아/어지다
		64	상태동사+-게	수식: 부사어	상태동사+(으)ㄴ: 관형어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태동사+-아/어지다/어지다 동작동사+-게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사물의 상태 변화 동작, 상황 변화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2	3과	형용사+-아/어/여지다	상태 변화	
		12과	동사+-게 되다	상황 변화	
	재미있는 한국어 3	6과	형용사+-게	수식	
	재미있는 한국어 6	11과	피동	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동 접미사 -아/어/여지다
서강대	서강 New 한국어 2B	5과	-아/어지다	상태 변화, 전개	
		9과	-게 되다①	변화 후의 결과 상태	
	서강 New 한국어 3B	4과	-게	목적	
	서강 New 한국어 4A	1과	-아/어서 -게 됐어요	원인, 자기소개	
			-다가 -아/어서 V-게 됐어요	사건 발생 원인	
	2과	-다 보니 -게 됐어요	조언, 결과		
	-다 보면 -게 될 거예요	조언, 소망 결과			
서울대	서울대 한국어 2B	12과	A-게	뒤에 나오는 행위의 정도나 방식	
			A-아/어지다/어지다	상태 변화	
		15과	V-게 되다	변화의 결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예정된 변화: 과거 시제(변화 미발생, 새로운 상황에 이르게 된 외부적 결정은 이미 내려졌음)

	서울대 한국어 3A	6과	V-이/히/리/기-(피동)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 행동	
연세대	연세 한국어 2-1	1과	서술동사-어지다/아지다/여 지다1	상태 변화	
			동사-게	후행 동사 상세 설명	
	연세 한국어 2-2	7과	동작동사-게 되다	화자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한 결과, 사람/시간 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	
		10과	동작동사-어/아/여지다2	피동	
	연세 한국어 3-1	2과	피동	피동	
	연세 한국어 3-2	9과	동작동사-게	동작 시작 위한 목적	
연세 한국어 4-1	10과	-게	(앞) 어떤 상황을 묻거 나 추측, (뒤) 그에 대한 근거 제시		
이화 여대	이화 한국어 2-2	8과	A+-게	뒤 동작/상황의 방법/정도	
		13과	V+ -게 되다	타인의 행위/외적 이유 에 의한 상황	
		15과	A+-아/어지다	천천히 어떤 상태로 됨	
이화 한국어 3-2	11과	피동사	피동	과생 접미사	
국립 국어원	세종한국어 3	11과	형용사+-아지다/어지다	상태 변화	
	세종한국어 4	1과	형용사+-게	후행 동사 수식	
		2과	동사+-게 되다	상황/행동 변화	

<표 3>에서처럼 한국어 교재에서는 ‘-게 되다’를 독립된 문법 항목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게’, ‘-아/어지다’, ‘피동 표현’ 등도 다루고 있었다. 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교재에서 ‘-게 되다’와 관련된 문법 항목의 처리 양상

구분	-게 되다	-아/어지다	피동	-게
경희대	• 동작동사 • 일/동작/상황 변화	• 상태동사 • 상태 변화	• 피동 접미사 • -아/어지다	• 상태동사 • 수식 부사

	• 동기/계기			
고려대	• 동사 • 상황 변화	• 형용사 • 상태 변화	• 피동 접미사 • -아/어지다	• 형용사 • 수식
서강대	• 변화 후의 결과 상태	• 상태 변화, 전개	없음	• 목적
서울대	• 동사 • 변화의 결과 (무의지)	• 형용사 • 상태 변화	• 피동 접미사	• 형용사 • 행위의 정도/방식
연세대	• 동작동사 • 발생한 결과 (무의도)	• 서술동사/동작동사 • 상태 변화/피동	• 피동 접미사	• 동사/동작동사 • 후행 동사 상세 설명/동작 시작 위한 목적(연결) • 어떤 상황 질문, 추측, 그에 대한 근거 제시(종결)
이화여대	• 동사 • 타인의 행위/외적 이유에 의한 상황	• 형용사 • 어떤 상태로 됨	• 피동 접미사	• 형용사 • 동작/상황의 방법/정도
국립국어원	• 동사 • 상황/행동 변화	• 형용사 • 상태 변화	없음	• 형용사 • 동사 수식

<표 4>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 되다'의 경우, 그 의미 기능은 '변화'로 처리하였다. 이때 경희대와 고려대, 국립국어원 교재에서는 상황이나 사건, 동작 등의 '변화'에,⁸⁾ 서강대와 서울대, 연세대 교재에서는 변화의 '결과'에, 이화여대 교재에서는 주체의 의도와 관계없는 '외적인 이유에 의한 상황'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게'의 경우, 경희대와 고려대, 국립국어원 교재에서는 '수식'으로, 서강대 교재에서는 '목적'으로, 서울대와 이화여대 교재에서는 '방법/정도'로 그 의미 기능을 제시했다.

셋째, '-아/어지다'의 경우, 모두 '상태 변화'의 의미로 제시하였다.

넷째, '피동'의 경우, 경희대와 고려대 교재에서는 '피동 접미사'와 '-아/어지다'를 함께 제시했으며, 서울대와 이화여대 교재에서는 '피동 접미사'만 제

8) 『경희한국어 문법 3』에서는 '동기/계기'의 의미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시켰다. 이에 비해 서강대와 국립국어원 교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러 관련 자료와 한국어 교재를 통해 ‘-게 되다’와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게 되다’의 의미 기능에 대한 관점에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⁹⁾ 따라서 보통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설정되는 ‘-게 되다’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게 되다’의 전반적인 의미 기능과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본 논문에서 ‘피동’의 개념과 그 의미 기능은 여러 앞선 연구들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때 김서형(2014, 57-6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 되다’의 의미 기능으로 ‘피동’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게 되다’의 문법 범주적 의미 기능으로 ‘피동’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게 되다’의 문법 범주를 차치하더라도 ‘피동’의 의미 기능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음을 언급했는데,¹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¹¹⁾

9) 김서형(2014)에서 ‘-게 되다’에 ‘피동’의 의미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에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학의 관점과 한국어 교육의 관점 등이 모두 고려되면서 한국어 문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최규수(2005, 105-107)에서는 ‘-게 하다’와 대응 가능한 ‘-게 되다’에 피동의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ㄱ.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

ㄴ. 철수는 (선생님에 의해) 책을 읽게 되었다.

ㄷ.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책을 읽게 되었다.

ㄱ의 ‘-게 하다’라는 사동에 대응되는 ㄴ은 피동의 ‘-게 되다’가 실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ㄱ과 ㄴ을 연결한 ㄷ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11) 덧붙이자면,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체계와 설명 등은 기본적으로 학교 문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게 되다’를 통사적 피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III.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특성

1. 분석 방법

여기에서는 먼저 세종 현대 국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되다'의 선행 공기어, '-게 되다'의 선·후행 공기어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 원시 말뭉치를 U-tagger로 형태 분석하여, 형태소 품사(POS, Part Of Speech) 정보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되다'의 선행 공기어에 대한 빈도 분석에서는 Antconc의 Cluster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게 되다'의 선·후행 공기어에 대한 빈도 분석을 위해 Antconc의 문맥 색인(KWIC, Keyword In Context)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 문맥 색인은 '-게 되다'를 중심어(Keyword)로 문맥을 검색하여 그 선·후행 공기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게 되다'에 동사와 형용사가 결합되는 말뭉치 예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 기능과 그 특징들을 함께 분석해 볼 것이다.¹²⁾ 이때 '-게 되다'의 의미 기능, '-게 되다'의 생략 여부, 발화 태도, '-어지다'와의 관련성 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첫째,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말뭉치 예문에서 나타나는 '-게 되다'의 의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게 되다'의 생략 여부를 검토한다. 이는 '-게 되다'가 생략될 때, 본래 문장의 의미와 동일함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을 추출해 보려 한다. 만약, '-게 되다'가 생략된 후에도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 '-게 하다'는 의미가 비어 있는 형식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게 되다'를 생략했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면 '-게 하다'에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내용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게 되다'에 나타나는 '발화 태도'와 관련하여 검토해 본다. '발

12) 그 외 체언이나 부사 등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각각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화 태도'와 관련하여 '공손성'이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¹³⁾ 본 논문에서는 '우회적/간접적 표현'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화자와 주어의 일치 여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먼저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면, 사건에 대하여 화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미가 나타나며, 그래서 화자는 그러한 상황이나 결과 등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이나 결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듯하다. 다음으로 화자가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화자가 서술자의 입장에서 상황/결과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자신의 감정 개입 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어지다'와 교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어지다'가 동작 동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를, 형용사와 결합할 때에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게 되다'와의 교체 양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려 한다.

2.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특성 분석

1) 독립된 문법 항목으로서 '-게 되다' 설정의 근거

여기에서는 '-게 되다'를 교수 학습할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선정할 근거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종 말뭉치에서 '되다'의 선행 요소로 실현되는 것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 편의상 상위 빈도 20위까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13) 앞에서 '공손성'은 상대방에게 나이나 이름 등을 물어볼 때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처리하고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표 5〉 '되다'의 선행 요소 실현 양상

순위	선행 요소	빈도	빈도율	Range	Norm Freq	Norm Range
1	게/ec	89,847	27.7%	1,439	0.313	0.964
2	이/jkc	64,722	19.9%	1,419	0.225	0.951
3	가/jkc	46,037	14.2%	1,401	0.16	0.939
4	안_02/mag	20,169	6.2%	1,289	0.07	0.864
5	면/ec	6,544	2.0%	1,084	0.023	0.727
6	어야/ec	4,239	1.3%	770	0.015	0.516
7	로/jkb	3,964	1.2%	818	0.014	0.548
8	여야/ec	3,796	1.2%	790	0.013	0.529
9	으로/jkb	3,757	1.2%	772	0.013	0.517
10	아야/ec	2,376	0.7%	633	0.008	0.424
11	이나/jx	1,939	0.6%	662	0.007	0.444
12	못_04/mag	1,804	0.6%	537	0.006	0.36
13	잘_02/mag	1,793	0.6%	681	0.006	0.456
14	도/jx	1,619	0.5%	633	0.006	0.424
15	나/jx	1,517	0.5%	606	0.005	0.406
16	아도/ec	1,303	0.4%	587	0.005	0.393
17	쯤_02/xsn	1,191	0.4%	495	0.004	0.332
18	다_03/mag	1,109	0.3%	468	0.004	0.314
19	어도/ec	1,089	0.3%	512	0.004	0.343
20	도록/ec	1,062	0.3%	404	0.004	0.271

〈표 5〉에서 보듯이 '되다'의 선행 요소로는 '-게'가 약 28%로 최고 빈도를 차지했으며, 보격 조사(14)와 부정 부사 '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되다'의 선행 요소로는 어미뿐만 아니라 조사나 단어, 접사 등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보격 조사 '-이/가'를 하나의 요소로 본다면 약 34%로 최고 빈도를 차지하게 된다.

〈표 6〉 ‘되다’ 선행 요소의 실현 양상

어미	-게, -(으)면, -아/어/여야, -아/어도, -도록
조사	-가이, -(으)로, -이나, -도, -나
부사	안02, 못04, 잘02, 다03
접미사	-쯤02

이처럼 ‘되다’에 선행하는 가장 빈도가 높은 요소는 ‘-게’이므로 ‘-게 되다’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삼아 살펴볼 근거는 충분하다 하겠다.¹⁵⁾ 이는 나머지 고빈도의 어미들과 ‘되다’의 구성체를 ‘-(으)면 되다, -아/어야 되다, -어도 되다’ 등처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다루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제 ‘-게 되다’에 동사와 형용사가 결합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 기능과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¹⁶⁾ 이때 ‘-게 되다’의 의미 기능, ‘-게 되다’의 생략 여부, 발화 태도, ‘-어지다’와의 관련성¹⁷⁾ 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2) 동사+‘-게 되다’¹⁸⁾

여기에서는 ‘-게 되다’에 동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말뭉치 검색 결과는 총 67,181개(문어 66,254, 구어 927)였으며, 편의

15) 물론 ‘-게’와 ‘되다’를 각각 분리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되다’는 그 어휘적 의미를 중심 요소로 삼아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게’에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게’를 단독으로 제시하여 주로 부사형 어미로서 뒤의 요소를 수식하는 기능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변화, 피동’ 등과의 의미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맺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게 되다’를 하나의 덩어리로 제시한다.

16) 그 외 체언이나 부사 등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이들이 있기에 ‘-게 되다’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각각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7) 일반적으로 ‘동작동사+ -어지다’는 ‘피동’, ‘형용사+ -어지다’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된다.

18) 한국어 교재에서는 보통 ‘동작동사’나 ‘V’가 ‘-게 되다’에 결합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알다, 느끼다, 걸실하다’ 등처럼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와도 결합한다는 점에서, ‘동사’로 제시하기로 한다.

상 상위 빈도 20위까지의 동사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동사+-게 되다' 구성에서 선행 동사의 실현 양상

순위	선행 동사	전체 빈도 ¹⁹⁾	빈도	빈도율 ²⁰⁾
1	하다 ⁰¹	567,560	3,897	5.8007
2	알다	76,322	3,282	4.8853
3	갖다(가지다)	72,130	2,916	4.3405
4	받다 ⁰¹	82,829	2,312	3.4414
5	보다 ⁰¹	155,675	1,511	2.2491
6	만나다	26,551	918	1.3665
7	느끼다 ⁰²	24,784	824	1.2265
8	가다 ⁰¹	100,154	752	1.1193
9	얻다 ⁰¹	18,477	734	1.0925
10	깨닫다	5,200	622	0.9258
11	살다 ⁰¹	52,358	581	0.8648
12	생각하다	54,245	499	0.7428
13	남다 ⁰¹	18,230	490	0.7294
14	나오다	56,789	484	0.7204
15	말다 ⁰¹	9,450	472	0.7026
16	발견하다 ⁰¹	6,401	435	0.6475
17	읽다	8,438	434	0.6460
18	나타나다	24,954	401	0.5969
19	죽다 ⁰¹	25,967	397	0.5909
20	듣다 ⁰¹	35,731	398	0.5924

<표 7>에서처럼 선행 동사로는 '하다⁰¹'가 가장 빈도가 높고, '알다, 갖다(가지다), 받다⁰¹, 보다⁰¹, 가다⁰²'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덧붙여 타동사의 결합 빈도가 자동사보다 결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게 되다'와 결합하는 동사들의 빈도가 전체 말뭉치에서 출현하는

19) '전체 빈도'는 전체 말뭉치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빈도를 뜻한다.

20) '빈도율'은 '-게 되다'와 결합한 전체 동사에 대한 비율이다.

빈도에 대해 유의미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엑셀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선행 동사 빈도수에 대한 t-검정

구분	전체 빈도(all)	빈도(동사+게 되다)
평균	71112.25	1117.95
분산	15097014783	1170755.313
관측수	20	20
공동(Pooled) 분산	7549092769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38	
t 통계량	2.547506457	
P(T<=t) 단측 검정	0.007509156	
t 기각치 단측 검정	1.68595446	
P(T<=t) 양측 검정	0.015018312	
t 기각치 양측 검정	2.024394164	

위 표에서와 같이 ‘-게 되다’와 결합하는 선행 동사들의 빈도 값은 유의확률 ‘P<0.05’를 만족하므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상위 빈도에 해당하는 동사 몇몇을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하다01’에 대해 살펴보자.

- (3) ㄱ. (나는) 82년 입사하여 금방 뉴스를 하게 되었다. 심야 뉴스였다.
 ㄴ. 햄릿은 오펜리아에게 소홀히 하게 되었고, 미친 척하기로 ...

(3ㄱ)은 주어가 화자인 경우로서, ‘-게 되다’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 상황은 화자의 의도나 의지 등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를 서술자로서 제3자의 눈으로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화하여 전달한다.²¹⁾ 만약 ‘(나는) 82년 입사하여 금방 뉴스를 했다.’라면 자신의 일을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서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편, 그러한 상황을 화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동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문법적으로 피동주가 설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²²⁾

(3-)은 주어가 ‘햐릿은’에 해당되며, 이때 ‘-게 되다’는 결과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결과 상태로서의 상황에서 피동의 의미가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의 ‘-게 되다’는 ‘-어지다’로 교체할 수 없다.²³⁾ 이는 백봉자(2007, 441)에서 피동의 ‘-어지다’는 변화의 과정, ‘-게 되다’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언급한 바와 관련되는 듯하다.

한편, ‘-게 되다’를 생략할 경우에는 각각 ‘했다’, ‘하였고’와 같이 어떤 사

21) 이때 ‘객관화’는 화자가 대상을 판단할 때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마치 관찰자나 서술자의 관점에서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접적 표현’은 주관성을 배제하여 우회적으로 예 돌려 표현함을 의미한다. 한편, 이지용(2021, 244-247)과 조윤희(2021, 300-302) 등에서는 ‘-는 것 같다’를 대상으로 하여 ‘객관화’의 의미 기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22) 여기서의 ‘상황 피동’은, 일반적인 피동과 달리 특정 상황에서 화자 자신의 의지나 의도 등과 관계없이 특정한 상황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 학기술부(2010, 222)에서처럼 구체적인 동작주를 상정하거나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 탈행동적으로 해석되어 동작주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탈행동적 피동’이라 한 바 있다. 따라서 그 기본 개념은 본 논문에서의 ‘상황 피동’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여기서 잠깐 ‘-어지다’로의 교체 양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ㄱ. 철수가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
 ㄴ. 철수가 구급차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
 ㄷ. *철수가 구급차로 병원에 가졌다.
- (나) ㄱ. 영이는 어머니가 시켜서 이 영화를 보았다.
 ㄴ. 영이는 어머니가 시켜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ㄷ. *영이는 어머니가 시켜서 이 영화가 보아졌다.
- (다) ㄱ. 영이는 친구 때문에 힘들다.
 ㄴ. 영이는 친구 때문에 힘들게 되었다.
 ㄷ. 영이는 친구 때문에 힘들어졌다.

각각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가 용언인 (가~다)에서 보듯이 ‘-게 되다’를 ‘-어지다’로 교체 가능한 것은 형용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만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피동의 문법적 절차로 보면, 피동 접미사에 의한 단형 피동 표현을 장형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게 되다’를 사용하므로 보통은 여기에 피동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동사는 피동 접미사에 의한 피동 표현이 되지 못하므로 ‘-게 되다’가 결합되어 피동의 의미가 실현된다. 이는 타동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형용사가 실현될 경우에는 ‘-게 되다’뿐만 아니라 ‘-어지다’로의 교체가 자연스럽다.

건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이 된다. 따라서 본래 문장들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는 의미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게 되다’를 통해 어떤 대상이나 사건 등을 객관화하여 관찰자나 서술자의 시점에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간접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동사 ‘알다’가 결합되는 용례를 살펴본다.

- (4) ㄱ. 내가 중국 사정을 차츰 알게 되어 중국 내국인들의 화폐인 ...
 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소상히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겁을 할 것인가.

(4ㄱ)은 화자가 주어인 경우로서, ‘-게 되다’는 변화에 따른 결과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국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상황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에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ㄴ)은 ‘아버지가’가 주어로서 ‘-게 되다’는 변화에 따른 결과 상태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동의 의미도 나타난다.

한편, ‘-게 되다’를 생략할 경우에는 각각 ‘알아’와 ‘안다면’이 되어 본래 문장의 의미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3)에서와 마찬가지로 ‘-게 되다’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간접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 되다’에 ‘가지다’가 결합되는 용례들은 다음과 같다.

- (5) ㄱ. 나까지도 덩달아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작가로서의 ...
 ㄴ. 정 씨가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부터 4년 전 ...

(5ㄱ)은 화자가 주어인 경우로서, ‘-게 되다’는 결과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

다. 그리고 화자의 의도나 의지에 따라 종교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피동의 의미가 발현된다 하겠다. 곧 화자가 자신에 대한 사건을 제3자의 시점에서 객관화하여 표현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화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님을 '-게 되다'를 통해 나타내어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ㄴ)에서 주어는 '정 씨가'로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두게 된 변화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가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의지로 스포츠에 관심을 둔 것이므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화자가 주어와 관련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게 되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받다'가 '-게 되다'에 결합되는 용례들을 살펴보자.

- (6) ㄱ. 보름 후에 너의 편지를 받게 되었어. 내가 얼마나 기뻐는지 ...
 ㄴ.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

(6ㄱ)은 주어가 화자인 경우로서, '-게 되다'는 결과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화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대방의 편지는 그것을 전해 주는 사람에 의해 화자가 받았다는 점에서 상황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겠다.

(6ㄴ)은 주어가 '베트남은'인데, 이때 '-게 되다'는 상황의 변화²⁴⁾나 결과 상태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독립 국가에서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거나, 국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서 식민 지배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쪽에 해당하든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수 없는 주어와 관련된 상황이나 결과라는

24) 이때 '상태'인지 '상황'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행동의 변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상황'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점에서 피동의 의미로 파악 가능하다.

한편, ‘-게 되다’를 생략하면 본래 문장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게 되다’를 통해 어떤 대상이나 사건 등을 객관화하여 관찰자나 서술자의 시점에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간접적 표현으로서의 의미 기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동사 ‘보다’가 결합되는 용례들을 검토해 본다.

- (7) ㄱ. 우리는 어떤 사회, 어떤 인간을 보게 될 것인가?
 ㄴ. 왕과 귀족들은 이 광경을 보게 되고, 결국 왕의 명으로 ….

(7ㄱ)은 주어가 1인칭 화자를 포함한 경우로서, ‘-게 되다’는 지금과 다른 미래에 어떠한 상태로서의 상황에 맞닥뜨릴 것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주어의 의도나 의지 등과 관계없이 맞이할 상황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황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겠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서술자의 시점에서 한 발 떨어져 거리를 둬으로써 그것을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ㄴ)은 주어가 ‘왕과 귀족들은’에 해당되는 것으로, ‘-게 되다’는 결과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피동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때 ‘-게 되다’를 생략하면 본래 문장의 의미와는 다른 단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게 되다’는 서술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객관화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한 간접적 표현으로서의 의미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다’가 실현되는 용례들을 살펴보자.

- (8) ㄱ.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게 되어 재수를 하는 길을 ….
 ㄴ. 그러나 오히려 그 자신이 귀양 가게 되고 말았다.

(8ㄱ)은 주어가 화자인 경우로서, '-게 되다'는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서술자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화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해당 상황을 화자 자신에게 작용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피동의 의미가 나타난다. 또한 피동의 의미에 기대어 화자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간 것에 대해 화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책임 회피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8ㄴ)에서 주어는 '그 자신이'로서, 이때 '-게 되다'는 상황 변화나 결과 상태의 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주어의 예상과 반대의 사건이 진행됨으로써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과 그 상황에 따른 결과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황이 나 결과라는 점에서 피동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한편, '-게 되다'를 생략하면 본래 문장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게 되다'를 통해 어떤 대상이나 사건 등을 객관화하여 관찰자나 서술자의 시점에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간접적 표현으로서의 의미 기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3)~(8)은 모두 '-어지다'로 교체할 수 없다.

3) 형용사+ '-게 되다'

여기에서는 '-게 되다'에 형용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형용사가 '-게 되다' 앞에 결합되는 어휘의 수는 총 17,640개(문어 16,910, 구어 730)였으며, 그 상위 빈도 20위까지의 형용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9〉 ‘형용사+게 되다’ 구성에서 선행 형용사의 실현 양상

순위	선행 형용사	전체 빈도	빈도	빈도율
1	있다01	465,632	3,842	21.78
2	어떻다	37,159	2,977	16.87
3	없다01	234,798	2,655	15.05
4	그렇다	79,586	2,318	13.14
5	이렇다	38,452	1,672	9.478
6	어렵다	22,867	552	3.129
7	필요하다	19,623	250	1.417
8	가능하다	13,846	247	1.400
9	불가능하다	4,582	105	0.595
10	힘들다	8,976	84	0.476
11	쉽다	16,893	81	0.459
12	저렇다	2,063	62	0.351
13	미안하다	2,986	50	0.283
13	불가피하다	2,138	50	0.283
15	중요하다02	20,856	45	0.255
16	다르다01	23,536	44	0.249
17	크다01	61,254	43	0.243
18	유리하다01	2,245	37	0.210
19	자유롭다	4,360	35	0.198
20	부족하다	4,454	33	0.187

‘-게 되다’에 형용사가 실현되는 선행 용언으로는 ‘있다01, 어떻게, 없다01, 그렇다, 이렇다, 어렵다’ 등이 상위 빈도로 나타났다.

이때 ‘-게 되다’와 결합하는 형용사들의 빈도가 전체 말뭉치에서 출현하는 빈도에 대해 유의미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엑셀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0〉 선행 형용사 빈도수에 대한 t-검정

구분	전체 빈도	빈도(형용사+게 되다)
평균	53315.3	759.1
분산	12135543406	1462513.779
관측수	20	20

공동(Pooled) 분산	6068502960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38	
t 통계량	2.133453456	
P(T<=t) 단측 검정	0.01970212	
t 기각치 단측 검정	1.68595446	
P(T<=t) 양측 검정	0.03940424	
t 기각치 양측 검정	2.024394164	

위 표에서처럼 '-게 되다'와 결합하는 선행 형용사들의 빈도 값은 유의확률 ' $P < 0.05$ '를 만족하므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예들을 통해 '-게 되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있다1'이 실현된 예를 살펴보자.²⁵⁾

- (9) ㄱ. 내 생각을 많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제일 좋았던 ...
 ㄴ. 항상 신뢰라는 그런 체크 버튼만 있었거든요. 근데 ... 항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체크 버튼도 있게 됩니다.

(9ㄱ)은 화자가 주어인 경우로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의 변화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그것이 화자 자신의 의지나 의도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처한 상황에 의해 그리 되었다는 상황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게 되다'는 우회적, 간접적 표현의 태도를 나타낸다.

(9ㄴ)은 '체크 버튼도'가 주어인 경우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버튼 가운데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버튼에 대한 소개에 해당된다. 이때 '-게 되다'는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체크 버튼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 생긴 상태의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²⁶⁾

다음으로 '어떻다'가 실현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어떻다'는 『표준』에서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로 제시된다.

25) '있다1'의 경우에는 '-(으)르 수(가) 있다'의 구성으로 쓰인 것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26) 참고로, (9)와 같은 경우의 '-게 되다'는 '-어지다'로는 교체할 수 없다.

- (10) ㄱ. 처음에는 모두 내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는 시선들을 ...
- ㄴ. 선거구제에 대한 당론 결정은 어떻게 되나.

(10ㄱ)은 화자가 주어인 경우로서, 화자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화로 인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 상태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10ㄴ)의 주어는 ‘당론 결정은’인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게 되다’는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0)과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어는 결과 상태를 나타내므로, ‘-어지다’로 교체할 수 없다.

다음으로 ‘그렇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 (11) ㄱ. 내가 그렇게 된 것이 다 누구 탓인데 ...
- ㄴ. 세상일이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마음 놓고 ...

(11ㄱ)은 화자가 주어로 실현된 것으로, 화자에게 변화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상태나 상황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변화는 화자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 피동의 의미가 나타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술자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렇다’라는 지시어가 청자에게 가까운 것을 지시하는 의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ㄴ)은 ‘세상일이’가 주어로서, ‘-게 되다’는 ‘세상일’이 변화를 겪은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역시 세상일을 모두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술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⁷⁾

이제 ‘이렇다’가 쓰인 예를 살펴보자.

27) (11)의 ‘-게 되다’는 ‘-어지다’와 교체할 수 없다.

- (12) ㄱ. 글썄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되었나요.
 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특히 정치권이 민족의 ...

(12ㄱ)은 1인칭 화자가 주어인 경우로서, '-게 되다'가 변화의 결과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화자인 '나'가 제3자의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서술자와 동일시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렇다'라는 지시어가 화자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의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ㄴ)은 '사태가'가 주어인 경우로, 그것이 변화한 후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도 서술자가 사건 전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²⁸⁾

이제 '없다이'의 경우를 살펴본다.²⁹⁾

- (13) ㄱ. 내가 낫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
 ㄴ. 주주 총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게 된다.

(13ㄱ)은 화자가 상위문의 주어로 실현되었는데, '-게 되다'는 주어가 처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게 되다'가 생략되면 단정적 표현이 된다는 것을 통해, '-게 되다'가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자가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의 상태가 몇몇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3자의 시선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의 '-게 되다'는 '-어지다'로 교체가 어색하다고 판단된다.

(13ㄴ)은 '결의도'가 상위문의 주어인데, 여기서 '-게 되다'가 생략되면 단정적 표현이 되어 부정적인 기정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게 되

28) (12)의 '-게 되다'는 모두 '-어지다'로 교체할 수 없다.

29) '없다이' 역시 '있다이'과 마찬가지로 '-(으)르 수 없다'로 사용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를 통해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약화시키거나 부정적 결과의 책임이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동'의 의미도 나타나게 된다.³⁰⁾

마지막으로 '어렵다'에 대해 살펴본다.

- (14) ㄱ. 그러나 먼저 번에 내가 어렵게 되었을 때 자네가 나를 여러 번 ...
 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본격적 경기 회복이 어렵게 되고 잉여 노동력이 남아 있는 ...

(14ㄱ)은 화자가 주어로서, '-게 되다'는 상황의 변화로 인한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화자가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자신의 탓으로 그러한 결과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닌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므로 우회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황 피동의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즉, 화자의 의도나 의지 등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14ㄴ)은 '경기 회복이'가 주어로서, '-게 되다'는 변화로 인한 결과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러한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진술함을 나타내기 위해 '-게 되다'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4)의 '-게 되다'는 모두 '-어지다'로 교체가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동일한 이유로 보인다. 이처럼 '-게 되다'와 '-어지다'가 서로 교체가 가능한 것은 공통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30) 이 경우의 '-게 되다'는 '-어지다'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지다'가 백봉재(2007, 441)에서 제시한 것처럼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피동의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게 되다’의 제시 방법에 대한 제언

‘-게 되다’의 의미로 ‘변화’를 중심 의미로 보고 ‘-게 되다’를 독립적으로 제시한다면 ‘문법 항목’이라기보다는 ‘표현 항목’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 항목’과 ‘표현 항목’을 완전히 분리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또는 ‘문법 항목’이라고는 하지만 ‘표현 항목’을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 항목’과 ‘표현 항목’ 자체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교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게 되다’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문제가 된다.³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게 되다’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게 되다’를 독립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즉, 동음이의어의 제시 방식을 취하거나, 다의어의 제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동음이의어의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5) ㄱ. -게 되다1: 변화(상황, 상태), 결과 상태/상황
- ㄴ. -게 되다2: 피동
- ㄷ. -게 되다3: 우회적/간접적 표현

(15ㄱ, ㄴ)은 ‘-게 하다’의 의미적 특성에 바탕을 두어 ‘변화’의 의미와 ‘피동’의 ‘-게 하다’를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15ㄷ)의 ‘우회적/간접적 표현’은 일종의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의미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의어의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31) 학교 문법에서는 피동 접미사에 의한 단형 피동과 ‘-게 되다’ 구성에 의한 장형 피동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피동’이라는 문법 현상에 대해서는 이 둘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학교 문법에서 피동의 ‘-게 되다’ 구성은 보조 용언 구성으로 처리된다.

(16) -게 되다: 변화(상황, 상태, 피동, 우회적/간접적 표현 등)

다의어처럼 제시한다면,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은 기본적 의미와 부차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기본적 의미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와 관련성은 없지만, 문맥에서 특정한 의미를 획득할 경우의 의미를 말한다.³²⁾

그런데 이들 의미 사이의 계층적 위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동’은 의미적으로 볼 때 포괄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동은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미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의미 기능이나 용법이 ‘변화, 피동, 간접적 표현’ 등과 관련되는데, 이들이 비교적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의어의 제시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덧붙인다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되다’를 분리하여 독립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음이의어의 제시 방식을 취하는 것이 ‘-게 되다’의 교수 학습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한국어 교재에서 ‘-게 되다’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처리한 후에 남은 문제는, 예문과 연습 문제 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15)에서 제시한 방법을 취한다면, 각각의 의미 기능에 완전히 부합되는 예문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곧 ‘-게 되다’의 의미적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예문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효과적인 연습 문제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32) 보통 다의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는 의미를 ‘기본/중심 의미’와 ‘주변/파생 의미’로 구분한다. 전자는 해당 단어의 의미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미를 말하며, 후자는 ‘기본/중심 의미’와 관련성을 맺으면서 확장된 의미를 말한다.(임지룡, 2007, 211-220 참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의어로서의 의미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변 의미’를 ‘부차적 의미’로 보았다.

IV. 결론

지금까지 '-게 되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말뭉치를 통해 형용사와 동사가 결합하는 양상의 분석을 통해 그 의미 기능과 몇몇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어 문법 교육의 측면, 특히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의 측면에서 '-게 되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첫째, 선행 연구를 한국어 문법 교육 관련 자료, 관련 논문, 한국어 교재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둘째,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세종 현대 말뭉치 대상으로 U-tagger, Antconc의 Cluster, Antconc의 문맥 색인(KWIC) 기능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사/형용사+ '-게 되다'에 해당하는 말뭉치 예문 분석하여 '-게 되다'의 의미 기능, '-게 되다'의 생략 여부, 발화 태도, '-어지다'와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사+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특징

구분	하다 ₁	알다	가지다	받다	보다	가다
1인칭 화자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변화 • 상황 피동 • 객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객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객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객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 상황 피동 • 객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객관화, 책임 회피
1인칭 화자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객관화, 우회적/간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우회적/간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객관적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변화,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객관화, 우회적/간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객관화, 우회적/간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객관화, 우회적/간접적

② 형용사+‘-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특징

구분	있다 ₁	어떻다	그렇다	이렇다	없다 ₁	어렵다
1인칭 화자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변화 • 상황 피동 • ‘-어지다’ 교체_x • 우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 ‘-어지다’ 교체_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상황 • 서술자 시점 [+거리] • ‘-어지다’ 교체_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화자 와 서술자 동일시 • ‘-어지다’ 교체_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상황 • 우회적 • ‘-어지다’ 교체_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서술자 시점 [+거리] • ‘-어지다’ 교체_○
1인칭 화자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 • 당위성 • ‘-어지다’ 교체_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 ‘-어지다’ 교체_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서술자 시점 [+거리] • ‘-어지다’ 교체_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서술자 시점 [+거리] • ‘-어지다’ 교체_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상황 피동 • 우회적/책임 회피 • 서술자 시점 [+거리] • ‘-어지다’ 교체_○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상태 • 서술자 시점 [+거리] • ‘-어지다’ 교체_○

넷째, ‘-게 되다’의 제시 방안으로 동음이의어의 제시 방식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게 되다’를 교수 학습할 때, 그 의미 기능을 그리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이 ‘변화’뿐만 아니라 ‘피동’과 ‘발화 태도’ 등이 긴밀하게 얽여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게 되다, 한국어 문법, 말뭉치, 의미 기능, 문법 항목 제시 방안

[참고문헌]

- 강현화, 이현정, 남신혜, 홍연정, 장채린, 김강희 (2018). 한국어교육 문법-자료편. 서울: 한 글파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 서울: 두산동아(주), 221-223.
- 국립국어원 (2009).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서형 (2014).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한국어 교육. *Journal of Korean Culture*, 27, 53-76.
- 김선영 (2015). '형용사+게 되다'에 대한 일고찰. *언어*, 40(1), 19-39.
- 김성기 (202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되다'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89, 345-372.
- 김원경 (2012). 피동 구문의 요건과 의미 자질. *우리어문연구*, 42, 91-120.
- 김윤신 (2017). 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피동에 관한 국어학적 고찰. *한글*, 318, 147-168.
- 김윤신 (2018). '-게 되다' 구성의 통사와 의미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62, 175-201.
- 김정남 (2009). '-게 되다'의 의미와 분포-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59-88.
- 남수경 (2007). 국어 피동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35(2), 89-113.
- 백봉자 (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 하우.
- 유연 (2017). 한국어 상태변화 구문 '-어지다'와 '-게 되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이지용 (2021). 자기 객관화 전략으로 사용된 '-는 것 같다'의 의미 연구. *교양학연구*, 15, 229-252.
- 임지룡 (2007).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210-220.
- 조윤희 (2021). 한국어 표현문형 '-은/는 것이다' 담화기능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54, 281-309.
- 최규수 (2005). '되다'와 '지다'의 피동성에 관하여. *한글*, 269, 101-134.
-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10). 재미있는 한국어 6. 서울: 교보문고.
-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11). 재미있는 한국어 2. 서울: 교보문고.
-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11). 재미있는 한국어 3. 서울: 교보문고.
- 구재희, 현진희, 이소영, 김민선, 황선영 (2018). *이화 한국어 3-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국립국어원 (2013). *세종한국어 3*. 서울: 하우.
- 김현진, 이인경, 강여림, 박은선, 김미영 (2018). *이화 한국어 2-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2016). 서강 New 한국어 2B-문법·단어 참고서. 서울: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2018). 서강 New 한국어 2B3. 서울: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2017). 서강 New 한국어 3B-문법·단어 참고서. 서울: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2017). 서강 New 한국어 3B. 서울: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2018). 서강 New 한국어 4A. 서울: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울대 언어교육원 (2016). 서울대 한국어 2B. 서울: (주)투판즈
- 서울대 언어교육원 (2017). 서울대 한국어 3A. 서울: (주)투판즈
-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15). 연세 한국어 2-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15). 연세 한국어 2-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15). 연세 한국어 3-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15). 연세 한국어 3-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15). 연세 한국어 4-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이정희, 김중섭, 조현용, Danielle O. Pyun, 유수정, 윤세윤, 윤주희 (2017). 경희한국어 문법 2. 서울: 하우.
- 이정희, 김중섭, 조현용, 박선희, 정윤주, 정미향 (2017). 경희한국어 문법 3. 서울: 하우.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법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어 문법 교육 자료에서는 ‘변화, 피동, 공손’ 등을 ‘-게 되다’의 의미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교재에서는 ‘변화’로만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을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세종 말뭉치의 현대 문어와 구어 말뭉치에서 ‘-게 되다’ 용례를 모두 추출하여 그 용법을 통해 의미 기능을 분석해 보았다. 이때 ‘-게 되다’의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생략 여부, 발화 태도, ‘-어지다’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먼저 동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는 말뭉치에서 67,181개가 추출되었다. 이때 ‘하다01, 알다, 가지다, 받다01, 보다01, 가다02’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 동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의 말뭉치 예문을 분석했는데, 이때 주어와 1인칭 화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상황 변화, 결과 상태, 피동, 객관화, 우회적/간접적 표현’ 등의 의미 기능이 나타났다.

한편,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는 말뭉치에서 17,640개가 추출되었다. 이 경우에는 ‘있다01, 어떻다, 없다01, 그렇다, 이렇다, 어렵다’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기에, 이들과 결합하는 ‘-게 되다’의 말뭉치 예문을 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황 변화, 결과 상태/상황, 전제, 당위성, 피동, 서술자의 시점, 화자와 서술자의 동일시, 우회적 표현, ‘-어지다’와의 교체 가능 여부’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닌 ‘-게 되다’를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동음이의어의 제시 방식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ge doida” in Korean Grammar

Kim, Mungi (Kyungsung University)
Shin, Inhwan (Matsuyama University)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semantic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ge doida” in Korean grammar.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semantic function of “-ge doida”, we thought it would be efficient to utilize corpus data. Therefore, we extracted the usage of “-ge doida” from both the modern written and spoken corpus of the Sejong corpus and analyzed its semantic function through its usage. We considered not only the semantic function of “-ge doida” but also its omission, utterance attitude, and relevance to “-eojida”.

First, 67,181 examples of “-ge doida” conjugated with verbs were extracted from the corpus. As a result, the following semantic features emerged: situation change, result status, passive, objectification, and circumlocution/indirect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17,640 examples of “-ge doida” conjugated with adjectives were extracted from the corpus.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ors were analyzed: change of situation, resultant state/situation, premise, justification, passive, narrator’s point of view, identification of speaker and narrator, circumlocution, and interchangeability/non-interchangeability with “-eojida”.

To present “-ge doida” with these various semantic functions in Korean textbooks, we proposed a method of presenting homophones.

[Keywords] -ge doida, Korean grammar, corpus, semantic function, presentation of grammar item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13일 / 논문심사일: 2023년 8월 9일 /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7일

[저자연락처] kimmg5058@hanmail.net, h.shin@g.matsuyama-u.ac.kr